

Japan Weekly Digest

2011. 12. 03. ~ 12. 09.

☐ 금주의 이슈

- 일본경제, 물가양극화와 디플레
- 일본 내각부, 「행복도 지표」 발표
- 3/4분기 실질경제성장율 5.6%로 하향

☐ 일본기업전략

- 해외투자과 국내투자간 명암 엇갈려
- JX에너지, 한·중·일 윤활유생산 재편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이노베이션 거점입지사업 지원
- 가나자와 중소기업재생 펀드 설립
- 일본·베트남 금형산업 협력

☐ 보고서 리뷰

-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에 대비하여
_다이나믹 종합연구소_12월3일



대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경제, 물가양극화와 디플레

- 10월 소비자물가는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나, 소비자의 70%가 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의 디플레 예상은 저하되고 있음
- 상품가격이 양극화는 식료품 등 생필품가격이 상승하는 반면, 주력산업분야에서는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에 직면, 디플레 탈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
- 경제전문가들은 디플레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, 일본은행은 10월 경제·물가 정세전망에서 2011년, 2012년 모두 물가 상승율이 0%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다름. 내각부가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에 의하면 1년 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9.6%로 전월비 2.4%포인트 증가. 이와 같이 일본의 소비자들이 디플레를 실감하기 어려운 최대 이유는 원유나 곡물류 등 생필품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인

□ 일본 내각부, 「행복도 지표」 최종안 발표

- 일본 내각부는 신성장전략에서 행복도 지표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. 8월에 발표한 원안보다 많은 130여개의 항목을 제안,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자료를 모아 평가의 유효성을 검토할 예정
- 행복도 지표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관한 의식조사 외에, 경제·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된 지표로 주택의 만족도, 심신의 건강관련지표로 자살자수,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항목 등의 평가항목을 설정. 전 항목을 통합한 지표는 산출하지 않고, 항목별 평가결과로부터 사회적 상황을 진단, 정책운영에 반영할 방침

□ 일본의 3/4분기 실질경제성장을 5.6%로 하향 수정
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/4분기 실질GDP는 전기비 1.4%증가. 연률로는 5.6%증가하여 11월 속보치(전기비 1.5% 증가, 연률 6.0% 증가)보다 약간 하향 수정
- 이는 재무성이 2일 발표한 법인기업통계를 반영한 결과, 설비투자가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임
 - 3/4분기 법인기업통계에서는 설비투자증가율이 전년동기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GDP수정치의 설비투자는 속보치의 전기비 1.1%증가에서 0.4%감소로 반전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해외투자과 국내투자간 명암 엇갈려

- 엔고를 배경으로 제조 기업들의 해외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. 국제협력은행조사에 의하면 해외사업을 강화·확대하겠다는 응답이 과거 최고인 87%, 여유자금을 활용한 해외기업 M&A도 확대
- 반면, 국내사업을 강화·확대하겠다는 응답비율은 과거 최저인 25.9%에 머물고 있음. 또한 3/4분기 국내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비 1.6%감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
-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도 상승하고 있는데, 2011년도 실적전망치 역시 과거 최고인 34.3%로 상승, 2014년도 계획치는 38.5%로 상승
- 높은 법인세율, 엔고, 전력불안 등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강화·확대하는 기업, 엔고 메리트를 활용하여 M&A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음
- 재무성이 2일 발표한 3/4분기 법인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조사대상 설비투자는 거의 모두가 국내투자인 점에 비추어, 늘어나고 있는 해외투자과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

□ JX에너지, 한·중·일에서 윤활유생산 재편

- JX에너지는 일본, 한국, 중국에서의 윤활유 생산체제를 재편. 내년 여름 한국의 합작공장 가동에 맞추어 일본 미즈시마제유소에 30억엔을 투자, 기초원료 공급능력을 20%정도 확대
 - JX에너지는 지난 8월, 한국 SK이노베이션그룹과 베이스오일의 합작생산에 합의, 울산에 년산 135만kl의 대형공장을 건설. 기초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와 생산된 베이스오일을 일본시장에 판매하거나 중국이나 미국에도 수출할 예정
- 중국에서는 최종 제품공장의 생산능력을 증강하여 주요 고객인 자동차메이커들의 글로벌화에 대응. 동아시아에서 최적 분업체제를 구축하여 2015년도에 해외 판매량을 현재보다 80% 확대할 계획
- 한·중·일 생산거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설비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코스트경쟁력을 높임. JX에너지는 윤활유분야에서 일본시장점유율 40%를 자랑하는 최대기업이나 제조업의 해외생산이전으로 더 이상 국내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이노베이션 거점입지사업 지원

- 경산성이 이노베이션 거점입지사업인 「첨단기술인증평가설비 정비 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제도」를 활용하여 25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
- 동 보조금제도는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평가를 위한 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설비의 실증평가 등을 촉진,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한 신제품 양산화가 목적
- 사업의 실시주체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, 대학도 포함되며, 지원신청은 기업이 독자적 또는 산관학이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

□ 가나자와 중소기업재생 펀드 설립

- 경산성과 중소기업기반기구가 공동으로 사업재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나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재생펀드의 설립 추진하고 있음
- 12월 7일, 가나자와현내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「가나자와중소기업재생펀드」를 설립. 지금까지 총 23개 펀드가 설립
 - 금번 설립된 가나자와펀드는 산업진흥센터, 금융기관, 신용보증협회가 24억엔을 출자한 가나자와현 최초의 중소기업재생펀드임
 - 지원대상기업은 10개사로 가나자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펀드운용은 요코하마은행그룹이 담당
- 경산성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재생펀드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금융기관 등과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

□ 일본·베트남 금형산업 협력

- 일본과 베트남정부는 금형산업협력을 추진기로 합의. 세제 우대조치를 통하여 일본의 중소금형메이커를 베트남에 유치하고, 금형기술 검정제도를 신설하여 기술자들을 육성
 - 세제 우대는 하이테크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율 25%를 일정기간 감면
 - 일본의 ODA를 이용, OB금형기술자들이 베트남기업의 기술지도 실시
 - 일본의 금형제작 기능검정제도를 도입, 베트남의 기술자육성 등

◆ 보고서 리뷰

『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에 대비하여』

다이와 종합연구소, 12월3일

-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저축율 저하로 세계 제1의 대외순자산 보유국이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대외순자산을 계속 감소시키는 이른바 負의 스파이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
- 미국은 대외순채무국이나 소득수지는 흑자이며 그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수지의 원천인 대외자산면에서는 주식(equity)투자와 외화표시대외투자의 자본이득(capital gain)이 발생, 자산규모 확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
- 일본도 장래 소득수지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, 이에 대외자산의 양적, 질적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. 일본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대외자산의 계속적인 축적과 수익향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
- 일본의 대외투자수익율(소득수지의 수취액/대외자산잔액)은 2.7%로 미국(3.4%), 프랑스(3.2%), 독일(2.9%)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

□ 해외투자 확대가 GDP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

- 일본의 해외투자는 채권투자가 중심이나 기업행동은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확대, 해외에서 벌어들여 일본으로 송금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
- 일본으로 송금 증가→ GNI(국민총소득: GDP+해외 요소소득의 순수취) 확대가 국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GDP등의 확대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활용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
- 송금비용 절감 외에 국내 연구개발부문이나 모공장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해외와의 차별화가 필요한 바, 세제상우대 등의 비용절감,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는 양질의 생산요소(숙련노동과 경영자, 사회자본 정비, 유연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본시장 정비 등)를 정비

□ 국내에 양질의 생산요소 배치를 통하여 대내투자 확대, 공동화방지

- 대내투자 확대도 필요한데 일본의 해외순자산이 세계 최대수준인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(대일투자잔액)가 적다는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내 투자의 확대여지는 대외투자보다도 훨씬 큼

- 국내에 양질의 생산요소 배치는 국내외를 기업을 불문하고 대일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. 그것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수익에 의한 투자든 외국기업에 의한 대일직접투자든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동시에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음

*출처: 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capital-mkt/11120101capital-mkt.pdf>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에 대비하여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12월3일

*출처: 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capital-mkt/11120101capital-mkt.pdf>

- (2) 『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조사』 일본정책금융공고, 12월3일

*출처: http://www.jfc.go.jp/a/topics/pdf/topics_111202_1.pdf

- (3) 『행복도에 관한 연구회 보고』 일본내각부, 12월6일

*출처: http://www5.cao.go.jp/keizai2/koufukudo/pdf/koufukudosian_sono1.pdf

- (4) 『인도시장의 확대와 일본기업의 전략전환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12월6일

*출처: 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1/pdf/cs20111002.pdf>

- (5) 『일본제조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서』 국제협력은행, 12월6일

*출처: <http://www.jbic.go.jp/ja/about/press/2011/1202-01/index.html>

- (6) 『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로서 사회적 배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』
미쯔비시종합연구소, 12월8일

*출처: http://www.mri.co.jp/NEWS/column/thinking/2011/2034210_1799.html